

생태도시의 색다른 힐링... '한평 정원' 놀러 오세요

순천시 국내 첫 '전국 한평 정원 페스티벌' 개최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1762~1836) 선생은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초당(草堂) 앞에 못을 파고 작은 정원을 꾸몄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1877~1962)도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매번 정원을 가꾸었다. 시대를 달리 하지만 다산과 헤세에게 정원은 혼란과 고통의 시대에 일상의 위로와 휴식을 주는 터전이었으리라.

순천시는 지난해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시민들의 참여 속에 골목과 빈터 등 자투리 공간 곳곳에 나무와 꽃을 심는 '아름다운 한 평 정원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 상표등록까지 마친 '한평 정원'은 재활용품과 화초·나무를 활용해 한 평(3.3㎡) 남짓의 자투리 공간에 꾸민 정원을 의미한다. 지난해에 61개소, 올해 33개소의 한평 정원이 조성됐다.

'생태도시'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형 정원 모델과 정원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1회 전국 한 평 정원 페스티벌'을 개최, 눈길을 끌고 있다.

◇작은 공간 큰 기쁨=이번 페스티벌은 '순천 정원으로 수놓다'라는 주제로 13일 개막해 28일까지 순천만정원과 도심에서 열린다.

순천시는 이번 한 평 정원 페스티벌에서 정원 산업과 한평정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전문가, 학생, 일반인 참가자가 중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작품을 선별할 계획이다. 시상은 폐막식에서 진행되며, 우수작품 작가에게는 프랑스 샤프랑(chaumont) 가든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평 정원' 페스티벌은 오는 28일까지 참가자가 작품 78점(작가부 10작품, 학생부 34 작품, 일반부 34 작품)을 전시하며, 매일 참여자가 하루씩 릴레이로 참여해

28일까지 작품 78점 전시 정원문화 새 패러다임 제시 전문가와 정원 조성 체험도

도심 자투리 공간 가꾸기 작년 61곳·올해 33곳 조성 꽃·나무 가득한 도시로

작품을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한평 가드닝 스쿨'은 학교정원과 배란다 정원, 옥상정원, 텃밭 정원 등 매일 주제를 정해 전문가와 함께 직접 정원을 조성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오전·오후 두 차례 25명씩 운영되며, 참가신청은 현장에서 접수한다.

또 '오픈가든'은 도심내 특색 있고 이야기가 있는 개인정원과 한평 정원을 공개하고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된다.

사전 예약에 의해 코스별 1일 두 차례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1회 10명에서 25명 이내로 운영된다. 1차 코스는 순천만 정원에서 출발해 옥천서원~문화의 거리~우 부자집~기독교박물관~흥매화집이다. 2차 코스는 순천만정원~옥천집~문화광장~매산동집~흥매화집~동외동 돌담집 코스이다.

이 밖에도 전시경연장 주변 소무대에서는 동호회의 색소폰, 오카리나, 성악, 7080, 포크송 등이 일정별로 펼쳐진다.

◇정원문화 전도사 지속적 양성=순천시는 정원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민 가드너(gardener=정원사)' 양성에도 발 벗고 나섰다.

교육은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3개월간 디자인·조

재·설계·관리·조성 등 5개 과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도심이 나무와 꽃으로 꾸며진다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순천시에 따르면 일본 도쿄 스기나미구(區)는 지난 2006년부터 집앞과 길가, 골목 등지에 꽃씨를 뿌리는 일명 '꽃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2008년 주거 집입건수가 2002

년에 비해 77%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 가꾸기가 잘된 지역은 범죄 발생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9개국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정원이 있는 집은 주택가 격이 평균 16%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민이 나무 한그루를 심게 되면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의 0.74%를 흡수한다. 1그루의 나무가 평균 5.6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것.

이 밖에 시민들이 가로수를 키우는 독일 칼스루에(karlsruhe)시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시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나무대부증서를 부여하는 '대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내 14만6000여 그루의 가로수를 시민 1인당 2그루씩 맡아 관리한다. 2년마다 '꽃단장 대회'를 개최해 아파트 발코니나 창문 등을 아름답게 꾸민 시민에게 상을 주기도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과 생태는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풀과 꽃이 함께 어우러진 손바닥 만한 한 평 크기의 땅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엄마의 정원(박보은 작·학생부)



▲행복만땅 순천(김숙희 작·일반부)



▲파리의 꿈(유나현 작·학생부)



▲음악정원(김성현 작·학생부)



▲우리집 (김용서 작·일반부)



▲장독대 정원(엄숙희 작·작가부)

제일대 간호과 4년제 승격

순천 제일대학교 간호과가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승격됐다.

순천 제일대는 "간호과가 2016학년도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 지정 신청결과 '4년제 승격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위탁 평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 간호교육 평가원은 지난달 21일 현장방문 평가를 거쳐 최근 순천 제일대를 2016학년도 수업연한 4년제 지정으로 발표했다.

학과운영과 교육과정 등 총 22개 항목을 심사해 70% 이상의 항목을 충족하면 된다. 순천 제일대는 22개 항목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순천 제일대 간호과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선발하게 되며, 현재 재학생(1, 2년)과 2015학년도 신입생들은 '3+1 제도'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2012학년도 입학정원 40명으로 개설한 간호과는 현재 130명이 재학 중이며, 성가톨릭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김지환 총장은 "이번 4년제 지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한층 높여 전문적인 간호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의료보전 분야에서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지역 사회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우수 보건의료인을 양성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낙안읍성 관람료 인상

성인 2000원→4000원

지난 2005년부터 10여년 동안 동결했던 낙안읍성 관람료와 시설 사용료가 인상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낙안읍성 운영위원회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해 관람료와 시설 사용료 등을 평균 86% 인상하는 내용의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순천시는 그동안 낙안읍성을 방문한 관광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낙안읍성의 보존적 가치를 평가할 때 관람료와 영화·드라마 촬영 등 각종 시설사용료가 다른 관광지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나오에 따라 이번 인상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관람료가 어른은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청소년과 군인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됐다.

단체 관람시 성인은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청소년과 군인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또 놀이마당 사용료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TV 촬영(1회) 10만원에서 50만원, 영화촬영(1회) 15만원에서 100만원, 상업용 비디오 촬영 7만원에서 50만원 등으로 각각 인상했다.

순천시는 이번에 마련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전남도에 등록하고 나면 오는 10월 하순개부터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광주지역 자산 1위
당기순이익 1위
출자배당금 5%

2013년
관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배당금 ⇒ 5.0%
(현재 정기예금 금리 1년 3%)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서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3등 세습기 9명
4등 쿠키입력밥솥 12명
5등 자전거 12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8등 이차상 1200명

※ 6등까지는 참가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응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 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 지점 652-9203 (거동병원 아래)
월산 지점 364-7557 (대정초교사거리)